

다카야마 축제의 야타이

다카야마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호화로운 야타이이다. 야타이(屋台)란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수레를 가리키며,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야타이를 끌고 거리를 행진한다(음식을 판매하는 노점과는 다름). 다카야마 축제의 야타이 행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세계유산에도 등재되었다.

다카야마 축제의 야타이는 모두 매우 개성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팀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디자인과 장식으로 야타이를 제작하여 서로 경쟁했기 때문이다.

야타이의 디자인은 에도(현재의 도쿄)의 야타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식은 교토에서 유행했던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속제 장식은 교토 장인이 제작한 것이다. 에도와 교토의 미의식이 융합된 야타이의 디자인은 상인 마을 다카야마의 전통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다.

야타이는 각 지역에서 ‘야타이구라(屋台藏)’라고 불리는 높다란 창고에 보관된다. 이때 날씨나 관리 부주의로 야타이가 파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만약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야타이를 야타이구라로 옮기고 축제 내내 같은 장소에서 대기시킨다. 2010년대까지 야타이를 움직이거나 탈 수 있는 사람은 그 야타이를 소유한 지역 주민에 한정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봄 축제용 16 대, 가을 축제용 15 대의 야타이가 있었지만, 화재 등으로 인해 여러 대가 유실되었다. 현재는 각각 12 대, 11 대가 남아있다. 1960년에는 23 대의 야타이 전체가 국가 지정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16년에는 ‘일본의 야마·호코·야타이 행사’의 일부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사쿠라야마 하치만구 신사에는 가을 축제용 야타이 4 대가 전시되어 있다.